

90년대의 建築士와 建築 모럴

金榮洙/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

1990년, 庚午年 새해가 드디어 밝아왔다.

격동의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의 부푼 가슴으로 21세기를 향한 巨步를 시작한다.

지난 80년대가 온통 갈등과 모순으로 얼룩졌던 것만큼, 새로이 맞이한 90년대는 더욱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역사감각일 것이다.

시간은 시대를 만들어 흘러 가면서 역사 속에서 또 사라져 간다. 그러나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든 아니든 발전하는 것이든 간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우리 建築士도 '65년 법제정 이래 4반세기의 역사를 지켜온 영욕의 명암들을 잊을 수가 없다. 평가야 어떻든 훌륭한 도시와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성장이 극대화의 길을 걷던 시기에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의 역할과 소임도 남들 못지않게 진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적 결실만큼 국민들의 신뢰와 행정부의 협조가 미약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국민 홍보와 업적은 우리의 책임 몫이 크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정의 沒理解와 無後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풍미해 온 권위주의와 非民主의 소산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관한한 협회가 중심점이 되어야 하고 회원 모두의 뒷받침이 필요했던만큼 양자 모두 마음일 뿐 실천면에서는 불합격선에 머물고 말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젠 이런 낡드리와 잔재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역사의 순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位相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 바로 21세기로 가는 길목의 90년대가 또 다시 失機의 어리석음을 재현해서는 안되는 그야말로 계획과 설계, 행동과 실천의 10년이 되어야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80년대에서 넘어온 문제점들의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첫째는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건축사법과 불신과 부자유의 건축관계법 개정작업이다. 사무소 폐쇄와 감옥으로 직결된 건축사법 때문에 무참히도 유린당한 우리의 자존심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벌금판능과 전과자 양산의 건축법 때문에 무수히도

짓밟혀 온 건축주의 생활권만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확보시켜 주어야만 한다.

그 둘째는 비능률적이고 무기력한 協會像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소비적이 아닌 생산적 예산이 협회업무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감투와 명예가 아닌 봉사와 공적이 협회조직의 根幹이 되어야만 한다.

최소한 이 두가지 숙제만은 90년대 초반에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업이다.

90년대 중반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世紀末을 장식하는 우리의 도시와 환경에 무리한 가능성을 던져주는 建築士像을 정립해야 한다.

건축사의 고유한 창작행위는 국민과 법의 이름앞에서만은 무제한의 자유와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창작은 건축의 즐거움으로 이어져 문화의 發展軸上에서는 영원한 갈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건축사의 自尊과 良心도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자존은 사회 속에서도 특히 건축주의 존경을 그 바탕으로 하여 얻어지는 것이지만, 건축사의 양심은 건축사 스스로의 존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스스로 알고 실천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90년대의 후반은 생활전반에 걸쳐 일대변혁기에 접어들면서 첨단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갈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환경의 극심한 오염상태 속에서도 건축자동화시스템과 무인 로봇 만능시대를 체험하고, 나아가 장수를 꿈꾸는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적 도전과 극복이 함께 자리할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불확실성의 세계와 첨단시대를 리드할 건축모럴 이 생활과 환경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테크노 스트레스」등 첨단산업에서 오는 후유증을 치유하는 건축적 기술과 공간설계가 더욱 필요할지 모른다.

「노스트라담스」가 예언한 「1999년 일곱번째 달」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믿는 건축사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에, 오로지 2천년대를 살아 갈 우리와 후손들에게는 떳떳한 건축적 유산을 물려줄 책임 또한 큰 것이다.

21세기의 발전논리는 정치와 경제 대신에 문화적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건축은 인간과 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창조하는 과학과 예술의 최일선에 서게 될 것이다.

현상유지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변혁지향적인 엘리트가 바로 건축사이며,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건축사의 고유한 창작행위는 국민과 법의 이름앞에서만은 무제한의 자유와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창작은 건축의 즐거움으로 이어져 문화의 發展軸上에서는 영원한 갈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발전적 역사관을 실천하는 행동적 지성이 바로 우리들 건축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우리의 건축모형은 바로 여기에 그 지표와 근거를 두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世紀末의인 대결단의 와중에서도 21세기는 틀림없이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연과 인간을 가장 사랑하면서 문화를 최고로 즐기는 첨단집단이 우리 옆에 와 있을 것이다.

이제 2천년대의 갈 길을 밝히는 건축모형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도시와 환경을 가장 아끼면서 건축을 가장 사랑하는 건축사들만의 용기와 두뇌를 모아 이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기에 21세기의 창작과 건축도 10년간 꾸준히 계획하고 마련한 그 集大成을 건축모형로 삼아, 다음세기의 통일국가를 열어가는 지도적 입장에 서서 언제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공간을 영원토록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90년대에 거는 期待

김선양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21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좀 멀고 어찌면 환상적인 느낌마저 들지만 우리에게만 전공의 특성 때문인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 21세기의 도시에 남게 될 20세기의 유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짓고 있지 않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세기말에 활약하는 수많은 건축가들 가운데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반만년 역사 속에 숨쉬던 우리의 전통건축을 잠재워 놓은지 수십년, 변명같지만 서구화의 물결에 휘말린 사회 현실에서 건축문화 역기도 예외일 수는 없었지 않은가 생각되어진다.

각 분야에서, 선진국은 2천년대에 대비한 연구가 한창이라고 한다. 우리 건축계도 과거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2천년대의 꿈인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 속의 한국건축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 후배 건축인들로부터 무능했던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된 분야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90년대는 과거의 반성과 2천년대의 도약을 위한 분기점이 되어 우리 건축계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10년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과거의 많은 문제점의 지적이 밀거름이 되어 10년의 각고의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의 실체가 된다면 한국 건축발전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보람찬 90년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일부, 주관적일 수도 있으나 建築士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 건축사시험제도, 사무실 운영상의 對官業務 및 협회 업무문제등 몇가지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점들을 기대적인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 교육에 있어 21세기의 전반기를 주도할 건축가가 배출되는 90년대의 건축교육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다른 예술, 체육분야의 체험에서 처럼 우리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정확한 접목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건축이 백설공주가 요술에서 깨어나듯 깊은 잠에서 깨어날 날을 기대해 본다. 또한 학교 교육의 현실화를 통하여 졸업후 다시 기초부터 배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産學協同 체계의 강화로 학생이 졸업前에 이미 각종 실습 및 견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공 직업에 적응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사 면허제도에 있어서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질 높은 건축사들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험제도를 되돌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높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수험자격 : 기술사와 건축사는 같은 경력에서 수험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어떤 이유에서든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특혜는 크기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저해 요인은 물론 타전문직종의 면허와 비교할 때 질적저하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시기 : 통계적으로 허가건수가 가장 적은 시기를 정하여 해마다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치루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20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5명이 건축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년처럼 3월에 시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무실에 양해를 구해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 발표가 없더니 5월 예정이라고 소문이

났다가 7월 시험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거기에는 2차 시험까지 합하여 8~9개월을 시달리다보면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지치고 업무가 마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는가?)

출 제 : 이미 출제교수가 알려지면서 교수논문중심으로 문제의 성격이 분석되어 「정보전쟁」이 벌어지는 제도는 무언가 진정한 실력평가를 저해하고 있으며 설계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순수한 자기 실력만이 성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 격 : 해마다 합격자의 기폭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고 1차 합격자는 1년후 1차과목중 일부라도 면제해 줌이 당연하다고 본다.

셋째, 對官業務에 있어 건축을 위한 각종 심의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우리 모든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손실을 줄이는 첫째 요소가 된다. 관청은 허가를 위한 협조 분위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협회와

협동으로 허가권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모든 처리는 전담부서에서 한번 접수하면 신속·정확하며 칠후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토에 의해 허가 혹은 보완 통보를해준다면 진정 선진화된 대관 업무가 될 줄 믿는다. 애매한 반려 보다는 친절한 보완 위주의 체계가 정착화 되어야 할 줄 믿는다.

넷째, 협회 업무에 있어 협회는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협조를 주업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 건축사 사무소를 위한 컴퓨터 협조-구조계산, 내역서 작성 등과 각종 자료의 제공, 건축사제 정보 등 각종 연구도서 발행, 각종 OA 의 임대, 보조원 교육, 신규등록사무실의 운영 협조, 건축사 전용 휴양시설의 확보등 개척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고 본다.

이제 90년대는 21세기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건축재료, 디자인, 구조, 각종 자동화시스템등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건축가 2세의 길을 걸어주기를 소망하는 희망찬 1990년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餘裕의 建築을 위하여

金宇成/(주)아키프랜 종합건축사 사무소

1990년을 맞이하니 “해방둥이”인 나로서는 이젠 45년의 人生경력과 24년간의 건축경력이 되었다.(대학 3학년 이후 부터 계산하여)

선배님들이 보실적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현재 내 심정으로는 그 정도의 時間이 지났으면 一家見을 人生 및 建築에서는 세워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살면 살수록,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人生과 建築의 공통점인 것 같다.

끝이 없는 求道者의 길, 正답이 없는 길 그러니까 어렵고 겸손해지고 노력하게 되고 괴롭고 한 것이리라. 모든 일이 어려운데서 고통스럽지만 도전해 보고 싶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리라. 서양속담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과 같다.

人生과 建築에 正답이 있다면 그래서 누구나 目標 달성여부를 재어 나갈 수만 있다면 世上일이 便해지고 단순해지리라. 예를 더 들자면 하느님이 이

世上에서 사탄을 없애버리면 人間의 낙원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人間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극복 및 해결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나 자신도 아직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여유를 갖고 있는지를 되물어 본다. 設計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서 매년 賞을 주고, 현상설계 경기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 이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어렵고 괴로운 일들중에 하나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과정을 밟아야 하는 建築活動 중의 하나이다. 참여하는 일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지만 참여하는 데에, 그리고 어떻게 努力했는가에 意味부여도 중요하니까.

어느 Nobel 賞 수상 작가가 수상 결정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 수상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서 어렵게 지낼때에 상을 주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어 기꺼이 상을 받았겠지만, 지금 내가 이미 有名해진 후에 주는 상이라면 필요없으니 다른 無名의 작가한테나 주시요”라고 했다고 한다. 賞의 意味가 과연 무엇인가하고 생각해 된다.

建築의 分野는 그만큼의 時代超越의인 獨創性을

建築의 餘裕는 마음의 餘裕,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 現在가 틀릴수 있다는 餘裕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소위 政治人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아니 꽤 많은 양의 판단의 오차를 예상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에 맞는 옷이 내년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듯이. 그래서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옷을 고를 때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리고 아무때나 입어도 괜찮은 더럽 잘 안타는 옷을 사 입혔다. 우리가 하는 建築도 그래서 餘裕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현재의 판단과 상황에는 적합하더라도 건물의 목표 수명(10년~50년이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여유의 建築. “여유의 건축”은 時間性, 場所性,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각 個人性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우리 建築家들은 너무나 “Minimum”(최소 적정치)에 익숙해 있고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지. 설계의 기준을 자료集成(특히 日本의 基準)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모든 建築에 여유가 없는 딱딱한 것이 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日本의 建築은 내가 보기에는 “빈틈없는 建築”이 아닌지. 아니 최소한 그를 指向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교한 Detail, 6자 다다미 모듈에 딱딱 들어 맞는 모듈의 건축. 이런 建築을 딱딱한 建築, 긴장의 建築이라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여유의 建築”, 여백이 있는, 푸근하고 넉넉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라고 한다.

이런 建築을 소박하고, 금방 싫증나지 않고 좀 완벽하지 않은 듯 한데서 오는 人間味가 있는 것 같다.

建築의 餘裕는 마음의 餘裕,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 現在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소위 政治人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너무 적정하고, 완벽하고 자기에게 최적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과욕이 되어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建築의 餘裕, 餘裕의 建築은 建築家 自身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自己의 主觀, 感性, 論理만을 떠나서 남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틀림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되는 것은 아닐지.

新年, 1990年代를 맞이하며, 不足함을 느끼고, 그리고 괴로워하며, 努力하고 또한 즐거운 建築人이 되려고 “마음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는 뜻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과 같은 뜻을 아닐까? 마음을 먹어(食) 버리면 없어(無)질테니까.》

우리 것에 대한 可能性

承孝相 / 승효상건축연구소

80년대에 일어난 우리네 건축환경의 변모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변혁의 규모와 같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회고할 수 있다. 사회의 새로운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성격의 다양화와 더불어, 올림픽이라는 이벤트에 맞춘 거대 프로젝트들의 등장 및 기념비적 건축물의 출현, 또한 산업기술의 발전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현방식의 형성등 한국건축은 그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급속히 확대된 수요를 위해서 단순한 물량공급에 급급하여, 한국건축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無國籍의 표정으로 우리네의 환경을 가꾼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네의 位相이 어디에

있는 가도 이제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金壽根, 金重業 두분이 남긴 공허감은 두분이 생전에 이룩한 업적 만큼이나 그 크기가 깊은 것이어서, 그 이후 한국건축에서의 지도적 건축가(leading architect)가 뚜렷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우리네 건축문화를 진척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90년대에는 다시 leading architect가 등장해야 하고, 그 등장을 위해서 활발한 발표와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들에 의해 한국건축의 계보가 다시 쓰여질 수 있어야 하고 뚜렷한 Color와 Tone을 내는 설계집단만이 그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표정은 불과 몇년 사이에 표피적이고 즉흥적 건축으로 많은 부분이 채워져 있어 이러한 루즈 바른 촌색시 같은 표정으로는 세계건축에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이 시점이 가장 세계적 건축 걸작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 한다. 즉 수공업사회에서 첨단공업사회의

소위 “韓國學派”가 90년대에는 태동되어 세계의 사상가와 이론가 사이에서 논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流派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건축론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고 미궁에 빠질 서양건축이 이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전환하기 직전의 시점이 그것인데, 선진화되고 조직화된 기계적 요소와 장인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적 요소를 함께 그 건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90년대야말로 한국건축의 세계화가 가장 가능한 시기일 것이다.

저널리즘을 통해 입수한 건축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단 복제 혹은 차용하는 식의 건축제작방식이 더이상 우리 건축계에 통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더우거나 상을 받아, 우리 건축계가 세계속에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빠른 길 중에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한국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우리의 세계화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고 달러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고, 한국 돈도 통용될 수

있어야 하듯, 한국의 건축도 한국정신으로 표현되어 그것이 세계속의 뚜렷한 좌표로 표기되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소위 “韓國學派”가 90년대에는 태동되어 세계의 사상가와 이론가 사이에서 논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流派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건축론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고, 미궁에 빠질 서양건축이 이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70년대에는 오히려 활발했던 우리의 것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경험부족으로 그 이론적 실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였던 반면에 80년대에는 변화하는 시대를 배경으로만 왕성한 실험이 행하여졌다고 볼 때, 이 대가온 90년대는 ‘우리의 것’만이 올바른 생명력을 갖고 이 땅위에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庚午年은 되었건만.....

崔昌奎/건축사사무소 新新建築

우리는 흔히 年末年始가 되면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되새기며 새해에 대한 희망이나 예측을 하며 신년계획을 세우곤 한다.

庚午年을 맞으며 나는 80년대 아니 건국 이래 가장 劃期的인 '88서울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성공적 개최다 해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찌되었든 무사히 끝나 참으로 다행이다. 건축계에서도 건축인 전체의 참여로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건축인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상이란 모든 면에서 그 분야의 극소수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생색내고 그러면서 그 사회의 상황을 조성해 나가며 어떤 대세를 만들어 사회의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체험해 온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이런 계기에서 89년을 뒤돌아 보면 “하이젠베르크”의 “不確定的時代”에서 말한 바나 “칼세이건”의 “第3의 衝擊”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전 인류나 지구라는 단위에서 볼 때 이렇다할 특기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서울올림픽이라고 해보아야 극소수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들이 다하고 일반국민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당장에 先進國이 된다고 해 땀땀은 5백원짜리로 올림픽복권이나 사서 1억원의 상금을 준다는 사행심에 동원되어 무리를 하여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샀지만, 누군가 당첨되어 1억원의 행운을 차지했는지도 알 길 없고 막상 개막식장에는 입장료가 워낙 비싸서 TV나 보았을 뿐, 그게 고작이었다.

建築界도 올림픽에 직접 참여한 극소수의 건축인 이외는 어떻게 설계되고 건설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건축계에서는 有史以來 가장 짧은시간내에 체육시설과 구조물등 올림픽에 관련된 건축물 등이 세워진 일도 일찌기 없었던 한해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5권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6권이 고개를 들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페이코 민주화와 자율화의 목소리가 각 분야에서 높아만 가는데, 建築分野의 일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의 비전문인들에 의해 좌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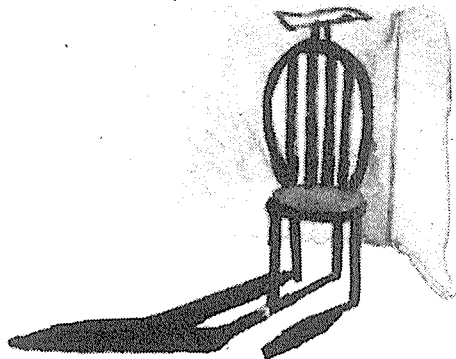
지난 10년간의 건축계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 올림픽과 관계되는 이야기로 충분하다. 올림픽이 사상 최대 참가국, 최대의 인원, 최대의 시설, 최대의 기록,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니 우리 일반국민은 그런가 보다 할 뿐이다. 국민 앞에 언제 올림픽백서를 제시한 적도 없고 결산서를 공개한 적도 없으면서

많은 후자가 났다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상당액의 상여금을 종사자들에게 배분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그것이 어느 부문에서 후자를 낸 것이고 얼마의 후자며, 얼마씩 배분해 가졌는지는 국민들은 모른다.

국민들은 모르면 의심을 가지게 된다. 더우기 과거부터 부정이니 비리가 없었던 바도 아니어서 安保라는 美名하에 만사 비공개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전문분야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요즈음 政界의 미묘한 움직임이나 경제계의 불안한 분위기, 학생운동의 문제, 노사문제 등의 산적된 연말의 제반문제들 속에서 건축계란 그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어서, 올해의 예측이나 희망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나열해도 그 허구성은 自明한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전 신문과 TV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의 建築士들에게 설문한 결과가 기가 막힌다. 이들이 건축허가업무에서 준공까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건축직공무원에게 떡값(?)을 주었다는 회원이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보아 왔다. 한나라의 공직사회가 부패한 나라의 패망을! 월남의 티우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정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 중공의 천안문사태 등도 공무원의 부패가 그 직접적인 원인 이었음을 보아왔다.



86%나 된다고 한다. 나머지 14%는 설문에 차마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결국은 전부가 공무원에게 공공연하게 상당액의 돈 쓰지않으면 일이 안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설문을 실시한 4개 도시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줄 안다.

이렇게 쥐꼬리만한 재량과 권한을 가진 그들이 그러한데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어떨지 의심이 간다.

며칠전 도로건설 수의계약시의 비리로 건설부의 국장급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만감이 교차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보아 왔다. 한나라의 공직사회가 부패한 나라의 패망을! 월남의 티우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정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 중공의 천안문사태 등도 공무원의 부패가 그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보아왔다.

별 도리없이 두뇌가 이미 비리의 침해를 받은 공무원들이 비전문분야까지도 자기네가 생각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당장 멸망하는 줄 아는 무식과 독선이 있는 한 90년대가 되어도 무엇하나 희망적인 예감이나 기대해 볼만한 생각조차 없다. 그러나 삶든지 죽든지 내 祖國이라 가만 있을 수는 없다. 영국의 석학 “그레고리 베이츨”의 “마음의 생태학”(Steps to an Ecology of Mind)을 전 공무원들에게 독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80년대의 건축이든 '90년대의 건축이든 간에 건축이란 그 사회 상황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상황을 조성하는 전체 국민의 5%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조성하고 이끌어 가게 되어있는 체계적인 것을 “마음의 생태학”으로 是正하기 전에는 이 사회는 可望이 없다고 본다. 規定이나 시행령, 조례는 물론 母法까지도 그들 마음대로 될 뿐아니라, 건물의 외양도 통제가 되는 느낌이다. (예로 사당동 남태령 밑에 “만사드”양식의 주택군을 보라) 따라서 모든 권한도 법규도 비리의 공해에 침해된 그들의 두뇌에서 표출되는 바에야 우리가 무슨 희망이나 계획 등을, 1년이란 단기간을 놓고 운운할 수가 있겠는가?

冬至가 지난 요즈음의 서울은 스모그 현상이 매일 일어난다. 침울한 연말 연시요, 불확정적 90년대를 맞이해야만 하는가?

그 옛날 滿登하고 아름답던 하늘이 그리워지는 이때에 말이다.